

오직 수험생만을 위한 특별한 문화 이벤트

오늘로 지난했던 수능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수험생은 물론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비롯해 수험생을 둔 가족 모두 고생했다. 출가분한 기분도 잠시 수험생들 앞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놓여 있다. 그러나 수능을 마무리한 만큼 잠시라도 여유를 즐겼으면 한다. 때마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ACC, 응원문구 추천 코레일 이용권 발송 전남도립미술관, 루오전 할인·무료입장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할인 쿠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17일부터 30일까지 수험생 응원 이벤트 'ACC가 너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해'를 진행한다.

응원 문구는 인스타그램 계정당 한 명만 지명할 수 있으며 수험생 자신도 참여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연인들도 응원을 보낼 수 있다.

전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인스타그램 필터 탭에서 'ACC 수험생 응원 필터'를 적용한다. 이어 증강현실(AR) 필터를 활용해 수험생의 계정을 태그하고 응원 사진과 문구를 작성,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 된다.

지정된 수험생 중 추천으로 총 30명을 선정해 전국을 7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코레일 내일로 이용권(6만 원권)'을 발송한다. 당첨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별도 인증해야 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수험생을 위한 할인 및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명의의 수험표를 지참하면 티켓 할인과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가 열린다. 수능생 대상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전남도립미술관 '루오전'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시는 국제 특별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닌 화가 조르주 루오' (2023년 1월29일까지)전과 연계 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전이다.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는 인간에 대한 뜻한 시선을 작품에 담은 작가로 이번 전시에는 포피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에서 대여한 20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면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무료 입장 가능한 전시는 광양 출신 이경모 사진작가가 남긴 사진을 역사적·예술적·미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경모 사진전'과 소장품 상설전 '흙과 몸'전이다.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도슨트 해설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3시.

영화관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CGV는 내달 13일까지 '작전명:미션 1117' 수능 이벤트를 열고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 영화 7000원 관람 쿠폰과 매점 콤보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메가박스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3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는 고객이나 청소년(만 7~18세)을 대상으로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을 제공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는 팝콘 교환권도 준다.

롯데시네마도 16일부터 30일까지 영화와 팝콘·음료를 할인해 주는 '롯데 할인 영역'이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달님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까'

미지의 세계를 꿈꾸며

김단비 개인전, 24일까지 예술공간 집

'신비로운 풍경으로의 초대.'

한국화가 김단비 작가가 펼쳐놓는 작품은 몽환적이다. 전통 산수화의 형식에 자신만의 상상의 이야기를 풀어놓아 흥미롭다. 마음에 품고 있던 이상과 동경의 세계는 화려한 색채감과 더불어 화면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화가 김단비 작가 개인전이 오는 2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오랫동안 '별유천지(別有天地)'를 주제로 작업해 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구성한 연작을 선보인다. 작가가 말하는, 이 세상 밖의 다른 세계인 '별유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달리 경치나 분위기가 아주 좋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유년시절부터 상상과 공상을 좋아했던 김 작가는 한 화면에 담기 어려운 상상 속의 풍경을 표현해 낸다. 지상으로 내려앉은 달, 까만 밤하늘, 문게구름 물결, 화사한 꽃과 풀, 배를 타고 떠 있는 두마리의 개 등 구체적인 사물과 자연의 형상은 잘 어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의 작품은 산수화의 전통을 놓치지 않는다. 옛 그림에서 보여지는 점점이 중첩된 산세와 능선은 현대판 산수로 변모했고, 금박을 비롯한 화려한 색채와 수려한 곡선은 화면에 신비감을 선사하며 이상향의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김 작가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별세계가 존재하길 원하는 나의 꿈과 희망을 이번 작품에 담았다"며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절묘하게 유지시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미술학부(한국화전공)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 2019 의재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프로젝트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유로운 포즈...누드 드로잉을 감상하다

전현숙 '흰, 밤에 벗고 노니나니'전 12월30일까지 예술이 백그라운드

'자유로운 인체 드로잉의 세계를 만나다.'

서양화가 전현숙 작가 전시회가 오는 12월 30일까지 문화공간 예술이 백그라운드(광주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 1-1)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 백그라운드 개관기념 초대전시로 마련됐다. 올해 문을 연 예술이 백그라운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푸른연극마을이 극장 씨어터연극마을과 함께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지금까지 한희원 작가 초대전 등이 열렸었다.

"나의 작업들은 내 삶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전 작가는 지난 2019년 푸른연극마을의 프로그램 '내 인생의 드라마를 펼쳐 보이기'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붓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던 그가 용기를 내 함께 했던 모놀로그 쓰기 연극모임에서 치유를 받았고, 그 때의 인연이 이번 전시로 이어졌다.

'흰, 밤에 벗고 노니나니(나, 백야유희·裸, 白夜遊嬉)'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작인 화사한 색채의 자전적 인물상과 함께 40여점의 누드 드로잉 작품이 나왔다. 광주



전현숙 작가 초대전 '흰, 밤에 벗고 노니나니(裸, 白夜遊嬉)'전이 오는 12월30일까지 예술이 백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예술이 백그라운드 제공>

시립미술관에서 드로잉 강좌를 진행하며 모델을 초청, 수강생들과 꾸준히 작업해온 결과물이다.

먹이나 연필 대신 붓과 푸른 색감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은 순간 포착된 인체에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부여한다. 세밀한 묘사 대신 한번에 그려넣은 선들로 입체감을 살리고, 각기 다른 포즈의 자유로움을 배가 시킨다.

18일 오후 5시에는 개막행사로 와인파티가 어우러진 작가 '토코쇼 놀고 싶어서'가 열린다. 오는 12월 14일에는 뮤지컬 배우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모어'를 통해 관람객들을 만났던 모지민을 초청, 드로잉 퍼포먼스와 음악연주, 모놀로그가 어우러진 독특한 토크쇼를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들의 이름으로' 이정국 감독 영화 무료 시사회

'엄마의 편지' '노인을 위한...' 등 3편 21일 전일빌딩245...감독과 대화도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의 이정국 감독의 작품을 관람하고 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오는 21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대강당(9층)에서 이정국 감독의 '영화 무료 시사회'가 열린다.

이정국 감독은 1991년 5·18 상업영화 '부활의 노래'를 제작해 백상예술대상 신임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최진실·박신양 주연의 '편지'로 제 19회 청룡영화상을 수상했다.

이 감독은 2011년부터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 총 11편을 제작했다.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을 통해 광주시민과 함께 만든 단편 영화로는 '무등산 아리랑', '늘 푸른 영상', '석양의 멜로', '무등산 연가', '가화만사상' 등이 있으며 올해 희망문화컵 페니와 공동제작한 '엄마의 전화'가 있다.

이날 상영하는 영화는 '엄마의 편지(2016) 등 3편이다. 정읍실버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고 서울노인영화제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

초청작으로 선정된 '엄마의 편지'는 16분 가량 분량으로 외향선원인 아들이 그리워하며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홀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영화다.

27분 분량의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는 앞서 개봉한 '엄마



'엄마의 전화'

의 편지' 제작 과정을 담은 스토리로, 주인공인 엄마역(이춘자) 캐스팅 과정과 촬영 현장, 상영회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엄마의 전화'는 25분 분량의 단편 극영화 형식으로 제작됐다. 한 무명 배우를 통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연기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 노총각 연극 배우 병주가 잘못 건 전화를 받은 차매결린 할머니, 그녀는 병주를 자신의 친아들이라 착각하게되고 병주는 친아를 연기를 하게 된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아모르공방 '쓰임' 전

19일~12월4일 드영미술관

알록달록 한복 자투리 천으로 만든 지갑, 가방, 쿠션.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2022년 아모르공방 결과보고전을 오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

아모르공방은 패스트패션의 유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예술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생활 소품 제작 커뮤니티로 입지 않는 헌 청바지와 한복 등을 활용해 개성있는 소품을 만든다.

'한복에서 찾다: [RE:쓰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낡은 한복 치마와 저고리 등을 활용해 만든 바늘꽃이, 브로치, 지갑 등 다양한 소품을 전시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0년 결성된 '아모르공방'은 지금까지 3년간 운영되며 다양한 강좌와 함께 환경성유공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자들은 전시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하고, 패스트 패션이 야기하는 문제를 한번쯤 고찰해보자는 제안을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